

카드뉴스 11호

# 이란 히잡 시위



사건 진상을 밝히고,  
자유를 위한  
이란 여성들의 시위  
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

# 지난 9월 부터 시작된 '이란 히잡 시위'

'이란 히잡 시위'는 22년 9월  
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 
이유로 이란 당국의 이슬람 종교경찰,  
일명 '도덕 경찰'에게 끌려간 후 의문사 한  
'마흐사 아미니(22)'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이다.

처음에는 아미니를 추모하고,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시위로 시작하여  
점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.

이란정부는 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여 총을 쏘고, 흉기를 휘두르는 등  
강경 진압을 이어갔고, 시위의 열기는 뜨거워졌다.



# 이란의 히잡시위,

##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배경

- 최근 더욱 강조된 여성의 히잡 착용의무  
히잡착용 강요 문제만이 아닌, 인권, 경기 침체, 정치적 탄압 등 복합적  
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
-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확산된 시위  
(체포된 시위대 중 10·20대가 90%를 차지)
- 이슬람 체제 전복 구호까지 등장



# 시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

이란 클라이밍선수 '엘나즈 레카비(여, 33)', 체스선수 '사라 카DEM(여, 25)', 이란의 축구영웅 '알리 다에이(남, 53)', 배우 '타라네 알리두스티(여, 38)' 등이 이 시위를 지지하였다.

이란의 시위에 대해 보도한 기자는 '반체제 선동' 혐의로 처벌을 당하기도 하였으며, 시위자들 중 2만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. 집계된 사망자만 530명인 것으로 보아,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.



▲ 이란 클라이밍선수 '엘나즈 레카비'

# 이란의 히잡시위, 과거의 시위와의 차이점

## 이란 남성들의 적극적 동참

- 여성이 시위의 주체이지만,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
- 과거에도 반정부 시위가 있었지만 이번 시위가 과거와 다른 이유
- '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' 위기감을 느낀 이란의 남성들

남녀노소 구분없이 시위에 참여



# 히잡시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

- 이란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,  
“나의 개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”
- 인권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와 태도가 필요하다.
-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.
- 비록 국가 정부 차원의 개입은 어렵더라도,  
이란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며 연대의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해야한다.